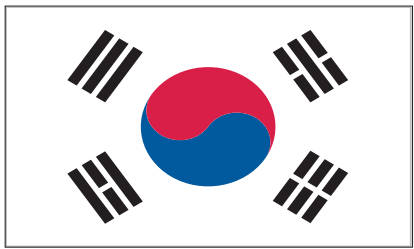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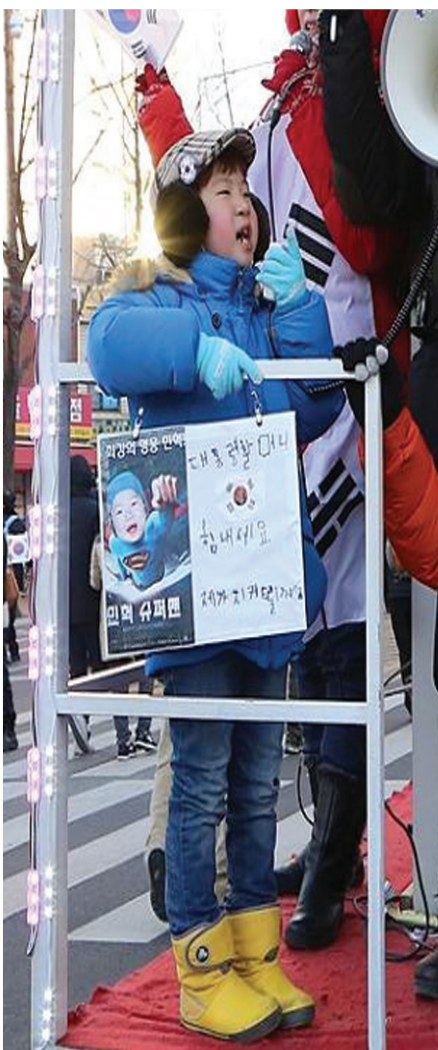


150만 태극기물결 하늘도 울었다.



이 아이들이 살아야 할 나라인데...



뉴스타운
NEWSTOWN

號外5

(호외)

2017년 1월 26일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아 10호
발행·편집인: 손 상 대 / 회 장: 손 상 윤 / 인쇄인: 정문희
대표전화: (02)978-4001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나라 망치는 작태 이제 끝내라

침묵하고 말하지 않은 애국 국민들 참을성 한계치 도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중보 세력들과 전쟁 선포하야

이러다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기 때문이다. 촛불선동에 뒤집어진 나라꼴을 더 이상 못 보겠고 태극기를 들고 나선 국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다. 이대로 모른 척 하다가는 어떤 대형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치권은 나라 경제가 개편이 됐는데도 오로지 대권에만 미쳐있다. 특검은 무조건 압수수색에 모조리 잡

에 전파되고 있는 촛불집회의 마진은 이제 그 실체가 벗겨져 있는 상태다. 촛불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며 나불거리는 동안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적화 '광산화' 음모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었다.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거대한 햇볕로 보수세력 모두를 불태우자"는 성폭한 문구들이 즐비해도 방송들은 한쪽 눈이 끼었는지 보지 못한다.

이런 행위는 이적행위를 넘어서 빨갱이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그러나 공권력까지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 이런 개떡같은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계엄령을 선포하라, 폭동이라도 일으켜 좌파 세력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누가 나서서 말릴 수 있는 상태를 지났다. 폭발 직전이다. 나라가 발



▲ 사진=촛불집회에 내걸린 대통령 성행위조사 결계 및 반역 표현물들

이들이 국민의 귀를 막았고, 국민의 눈을 막아버렸다. 100만 명이 넘는 태극기 집회는 3만으로 축소하고, 4만의 촛불집회는 100만으로 뿔뿔이하는 언론의 무지 막자는 국민 감정을 꺾발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을 파란 날 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치와 특검은 재벌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와 정권탈취 음모라는 것, 이제 세상이 다 아는 데도 무한결정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정치, 언론, 검찰, 여론조사, 민노총 등이 한통속이 된 무협혁명음모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대한민국 공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수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실에 극도로 흥분하고 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을 구하라고 모두 목소리를 높인다. 여론과 언론이 입을 닫아도 SNS를 통



▲ 사진=촛불집회에 등장한 단두대

각 뒤집힐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자. 진실보다는 거짓이 유행하고, 질서보다는 무질서, 정성보다는 비정성이 판치

성명 우리에게 폭동과 혁명을 논하게 하지 말라.

1.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삼성 이재을 부회장을 구속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된 후,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아권과 좌파는 공개적으로 법관을 압박했다.
2. 대한민국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헌법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권과 좌파 세력들은 대한민국 헌법 명문을 무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관을 유린한 것이다.
3.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라는 자를 역시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법관을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헌법을 유린했다.
4. 특검은 한 마디로 뒷골목 양치기 수준이다. 단 돈 1원도 먹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매기 위하여 정방위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선무당이 생사잡 잡는 수사를 하고, 기각될 것이 뻔한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5. 영장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다. 태극기 물결이 촛불을 압도하자마자 경찰은 경찰 추산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6. 특히 오늘의 태극기 집회의 인원을 추산한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장은 들으라. 이 군중이 당신네들이 말하는 2만 3만으로 보아는가. 눈이 있거든 제대로 보라. 그리고 지금 즉시 광화문 인원과 비교하라.
7. 태극기 집회는 1차부터 9차까지 평화집회, 준법집회를 외쳐왔다. 우리가 평화를 외치고 준법만 외치니 국민이 졸로 보이는가.
8.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목이 터져라 오직 정의와 진실만을 외쳤는데, 거짓과 왜곡, 공갈과 협박만 돌아왔다.
9. 일이 이지경이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 평화집회, 준법집회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 믿는가, 우리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10. 좌파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군중이 물리는 태극기 집회가 열려도 언론도 경찰도 진실을 외면하는데.
11. 아권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관을 공갈하고 협박하는데 우리더러 계속 무력하게 집회만 하라 할 것인가.
12.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선량한 국민을 폭동과 혁명으로 내몰지 말라.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결기 운동본부)
정광평 / 권영해 / 정광용

니다. 감청 조철이 안 될 국도의 순간에 이르렀음이다. 언론은 제 정신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좋다. 검찰과 특검은 거꾸로 간 탄핵으로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말하지 않는 5,600만의 국민들로 살고 있다. 재벌 나라 망치는 광란의 작태를 이제 제 재벌 끝내라.

〈손상윤 기자〉

제11차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 (탄기국) <불의무도한 영장청구, 특검은 해체하라!>

되머지 않은 선무당이 환자를 보면 일단 무조건 귀신이 씌었다고 코스리부터 친다. 의사도 아니니 제대로 진단할 리 없다. 제대로 된 무당도 아니니 영령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칼춤을 추면서 일단 환자부터 두들겨 팬다. 환자가 죽을 때까지.... 그러다 패가망신한 선무당이 한 둘이 아니다.

특검이 삼성 이재을 부회장을 구속하려다 법원에 의하여 기각 당했다. 선무당이 생사잡 잡으며 칼춤을 추다가 제 칼로 제 손목을 베어버린 꼴이다. 무당 작두도 아무나 치는 것이 아니다. 선무당이 날 선 작두를 타면 발목가지가 날아간다.

선무당 특검이 진짜 노리는 것은 박 대통령이었지만, 내용도 없고 말맹이도 없이 칼춤을 추고, 신기토 영령도 없으면서 미친 듯 칼춤, 작두춤만 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안은 분명하게 정리되었다. 이제 뇌물죄고 뭐고 단 돈 1원도 먹지 않은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끌어 넣으려던 추악한 시도는 물 건너갔다.

남은 결단은 특검의 몫이다. 더 이상 해 볼 자. 특검의 더러운 정치적 음모만 드러낼 뿐.... 전권 총사퇴하고, 온 달아라.

정치 특검, 음모의 마각이 드러났다. 즉시 해체하라.

주최/주관/참여 :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보수세력연합, 대한민국 권회, 대한민국 박사모, 국가비상대응국민위원회(국대위), 반국가교육적결국국민연합,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서북청년회, 도시민연대, 구미회합연, 무궁화회, 국민행복 실천협의회, 대한민국 박대모, 대한민국 나사모, 영남청우회, 상주청우회, 나라사랑이여나연, 정의행동, 구국300정의군사시대, 대한민국비밀연, 대한민국비밀연, 비밀사회의성도회, 애국동지회, 역사비밀일기(국민운동), 호국선양회, 부추연(부정패배추방시민운동), 비핵모, 핵박추는 글로벌 대한민국, 육원회, 대한민국세표퍼즈, 박정희대통령유언수이사회, 중수안사회, 박정희대통령친목동화선양회, 박정희대통령정신문화선양회, 태극기(신안운동중앙회, (사)박정희대통령과국립수어사를중요하는사람들의모임, 미래리더스포럼, 나라(독도)사랑국민운동본부본부, 전국농부들지키는농도반, 국가안보정책연, 대한민국세무회포럼, (사)세무회인정선정중앙회, 청년도, 국가안보정책연, 대외포전국연합,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육해군공해병대 대령연합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한국기독교총교회협의회, 기독교발전협의회,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한기독교연합총회 ... (참여회망대제신청 : 탄기국/보수대연합 (임시)간사 시흥 010-2200-5877)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은 제1보
이제 남은 판단은 헌법재판소
**우리가 나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 하나의 발걸음이 나라를 살립니다.**
2월4일(토) 오후 2시, 가자, 시청 앞 대한문.
**(1)태극기 빛지와 (2)태극기 (3)태극기 시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자... 가자... 승리의 길을 가자.**
일시: 2월4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시청 앞 대한문
지하철 1호선, 2호선 서울시청역 (어느 출구로 나와도 다 통합니다.)
주최/주관/참여: 탄기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결기 운동본부)
오직 여러분의 후원금으로만 이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일만 참여가 나라를 살립니다.
신청방법: 110-468-398553 (예금주:정병연 (박사모))

